



2013년 7월 30일

#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 투자전략

7월 31일 FOMC 관전법

## • 채권분석

공포의 보수

## • 이머징마켓 동향

정책 불확실성 부각, 상해종합 1.7% 급락

##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LG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엔씨소프트 외 5개 종목

## • 산업/기업분석

건설, 휴대폰업종, 만도, 비에이치, KB금융, 삼성전자, 에스원

##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 증시 캘린더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7/22(월)	07/23(화)	07/24(수)	07/25(목)	07/26(금)	07/29(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80.35	1,904.15	1,912.08	1,909.61	1,910.81	1,899.89	
	등락폭	8.94	23.80	7.93	-2.47	1.20	-10.92	
	등락종목	상승(상한)	435(3)	497(10)	445(7)	304(5)	417(3)	222(6)
		하락(하한)	362(0)	303(0)	341(1)	494(1)	385(1)	591(0)
	ADR	116.28	129.26	124.70	112.61	107.11	100.87	
	이격도	10 일	100.78	101.65	101.60	101.29	101.14	100.43
		20 일	101.79	102.74	102.81	102.47	102.40	101.70
	투자심리	50	50	60	50	60	50	
	거래량 (백만 주)	357	352	322	312	320	333	
	거래대금 (십억 원)	3,652	4,348	3,546	3,902	3,865	4,165	
코스닥	코스닥지수	541.14	541.64	543.60	541.94	545.31	540.98	
	등락폭	-0.73	0.50	1.96	-1.66	3.37	-4.33	
	등락종목	상승(상한)	435(10)	497(6)	445(6)	304(5)	417(6)	240(3)
		하락(하한)	362(1)	303(0)	341(1)	494(1)	385(4)	679(1)
	ADR	117.75	130.12	123.31	110.17	106.08	96.90	
	이격도	10 일	101.52	101.19	101.03	100.44	100.83	99.86
		20 일	103.29	102.79	102.67	102.07	102.45	101.51
	투자심리	50	50	60	50	60	50	
	거래량 (백만 주)	326	308	358	369	327	342	
	거래대금 (십억 원)	1,559	1,550	1,668	1,719	1,555	1,594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071.5	958.0	1,118.1	247.0	143.4	215.0	61.1	26.4	425.203	46.8
	매도	2,018.3	883.1	1,248.4	158.6	177.5	435.5	101.6	55.6	319.6	44.6
	순매수	53.2	74.9	-130.3	88.4	-34.1	-220.5	-40.5	-29.2	105.6	2.2
	7월 누계	-1,046.4	683.5	358.8	193.1	25.0	-670.7	-1.3	-288.3	1,101.0	4.1
	13년 누계	1,057.5	-9,302.9	8,799.5	2,034.9	1,022.9	-740.5	276.2	-339.5	6,545.6	-554.1
	코스닥	매수	1,443.6	70.2	86.5	14.8	13.0	23.3	4.6	2.9	27.8
매도		1,422.2	96.6	78.6	15.9	9.6	16.1	8.4	1.3	27.3	16.0
순매수		21.4	-26.4	7.9	-1.1	3.4	7.2	-3.7	1.6	0.5	-2.9
7월 누계		7.2	66.6	-25.9	0.0	36.3	-10.1	-15.7	15.2	-51.4	-48.0
13년 누계		-1,003.7	860.4	728.7	-49.7	103.4	408.5	-105.8	-39.9	422.3	-585.5

## 7월 31일 FOMC 관전법

7월 월간 밴드	1,780-1,93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250pt
12MF PER	9.46배
12MF PBR	0.99배
Yield Gap	7.7%P

- ▶ 관전법 1 : 떨어지지 않는 금리, 미국 주택업체의 약세
- ▶ 관전법 2 : 중국 단기자금시장 경색
- ▶ 투자전략 : 1차 반등 1,900선 마무리. 충분한 금리하락 없이 추가 Upside 기대하기 힘들어

6월 하락과 7월 반등은 동일한 요인으로 발생 : 금리

시장 반등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가 오가고 있다. 유럽의 경기회복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고, 중국의 미세조정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고, 한국의 차별적인 경쟁력을 높이 산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준거(準據)가 필요하다. 어떤 앵글을 가지고 시장을 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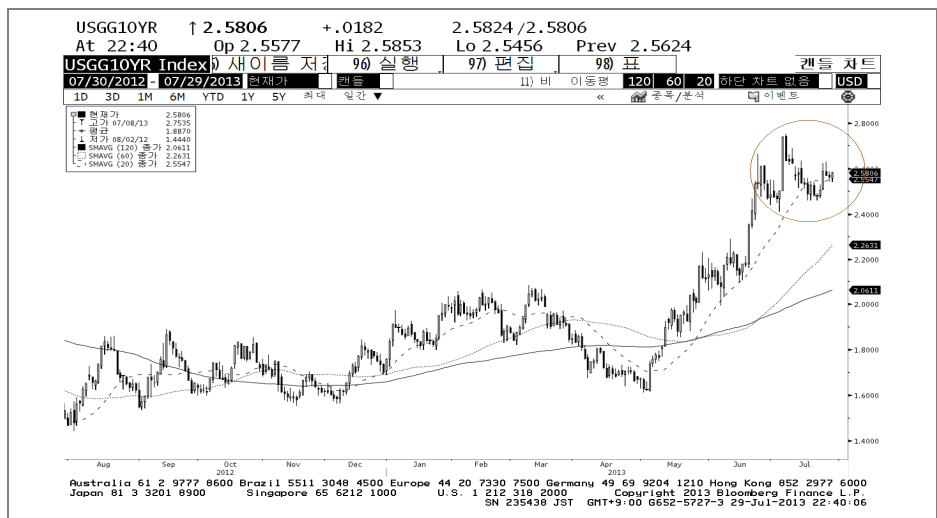
필자는 6월 시장 하락의 요인과 7월 시장 반등의 요인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흔들렸고, 금리가 안정되면서 시장도 안정됐다. 그렇다면 여전히 금리의 방향이 중요하다.

### ■ 관전법 1 : 떨어지지 않는 금리, 미국 주택업체의 약세

금리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걱정

8월 시장 전망에 있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금리가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6월 말부터 몇몇 연준 인사들이 ‘야생 돼지’ 운운하며 진정할 것을 주문했고, 버냉키 의장도 NBER, 하원, 상원에서 세 차례나 연설을 가졌다. 실업률 6.5%가 기준금리 인상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며 초저금리 기조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채 금리는 20bp 내외의 소폭 조정 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그림 1]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 고점 대비 낙폭이 20bp에 불과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버냉키는 초저금리 유지에 대해서는 약속했지만, 하반기 Tapering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음

이는 버냉키 의장이 올해 하반기 채권 매입규모 축소(tapering)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시작해 내년 상반기 종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보아 빠르면 올해 9월부터 매입 규모를 축소하게 될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7월 18~22일 실시된 서베이에서 조사 대상의 50%가 9월에 매입 축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6월 조사의 44%보다 크게 올라간 것이다. 10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5%, 12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28%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분기 단위로 경제전망을 수정 발표해 기자회견(press conference)을 갖는 관례 때문이다. 통상 FRB는 3개월(3, 6, 9, 12월)마다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의 미세조정 여부를 결정, 발표하는데 매입규모 축소가 나온다면 경제전망이 공개되는 9월이나 12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분기 전망을 수정하는 FOMC는 2013년에는 9월과 12월, 2014년에는 3월과 6월에 열리기 때문에 매년 200~250억 달러씩 축소한다면 내년 6월에는 완전히 종료할 수 있다.

<표 1> FOMC 회의 일정 및 Tapering 시나리오

	회의 일정	기자회견	시나리오
2013년	9월 17~18일	경제전망 발표 및 수정	650억 달러로 축소
	10월 29~30일	-	-
	12월 17~18일	경제전망 발표 및 수정	450억 달러로 축소
2014년	1월 28~29일	-	-
	3월 18~19일	경제전망 발표 및 수정	250억 달러로 축소
	4월 29~30일	-	-
	6월 17~18일	경제전망 발표 및 수정	종료

자료: 한국투자증권

8월 시장의 최대 불확실성은 금리 : S&P500 주택지수 YTD 수익률 마이너스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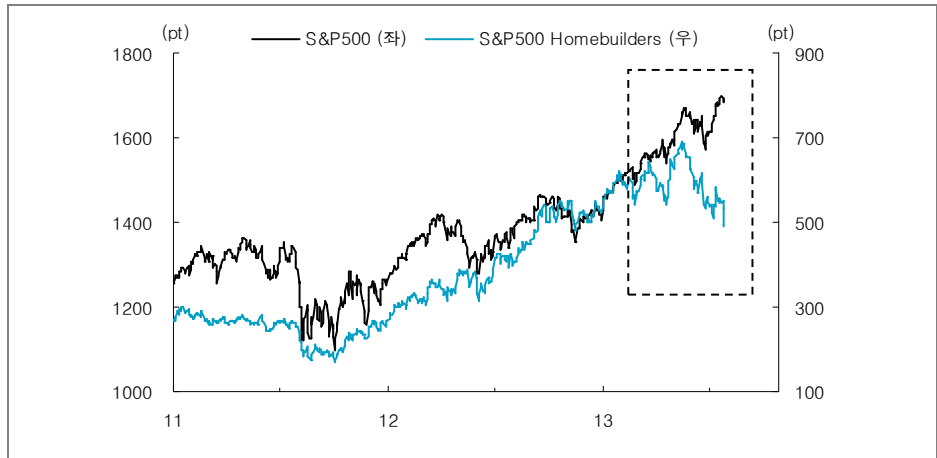
이는 8월 시장에 최대 불확실성으로 남게 될 것이다.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2015년 하반기나 2016년이라 해도 당장의 매입 축소로 인해 채권시장의 실질적인 유동성이 감소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여전히 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대부분의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버냉키 의장의 세 차례 연설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이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가 건전한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면 금리 상승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최근 몇 가지 이상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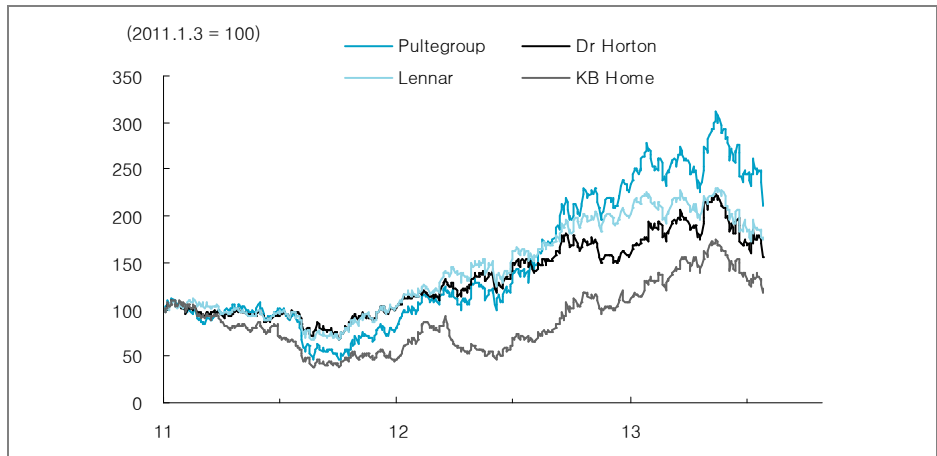
가장 흥미로운 것은 주택 업종의 약세다. S&P500의 사상 최고가 경신 행진에도 불구하고 세부 지수인 주택 업종 지수는 7월에도 별다른 반등없이 흘러내렸다. YTD 수익률은 지난 주 마이너스(-8.7%)로 반전했다. 최근 실적발표 자리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2분기 오더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고백했는데,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실적 악화의 주범은 바로 ‘모기지 금리 급등’이었다.

[그림 2] 미국 S&P500과 주택지수의 괴리 :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 미국 주택 관련 업체 주가 : 2011년 1월 이후 상대 주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인한  
유동성 이탈이 중국의  
내부 자금경색 야기

■ 관전법 2 : 중국 단기자금시장 경색

중국도 금리 상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출구전략 논란이 일었던 지난 6월, 중국에서는 7개월만에 외화 순유출이 발생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매달 2천억 위안 상당의 외화가 유입됐지만 5월 유입 규모가 668억 위안으로 급감했고, 6월에는 급기야 412억 위안 순유출로 돌아섰다.<sup>1</sup> 지난 6월 단기자금시장 경색이 갑자기 심각해진 것은 중국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2011년 이후 4대 국유 은행의 대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홍콩 금융시장을 통한 단기차입, 회사채 발행이 매우 성행했다. 향후 미국 금리가 재차 상승할 경우 중국도 다시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sup>1</sup> 외국 자금이 밖으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인민은행은 위안화를 매수하고, 달러를 매도하는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민은행의 통계로 잡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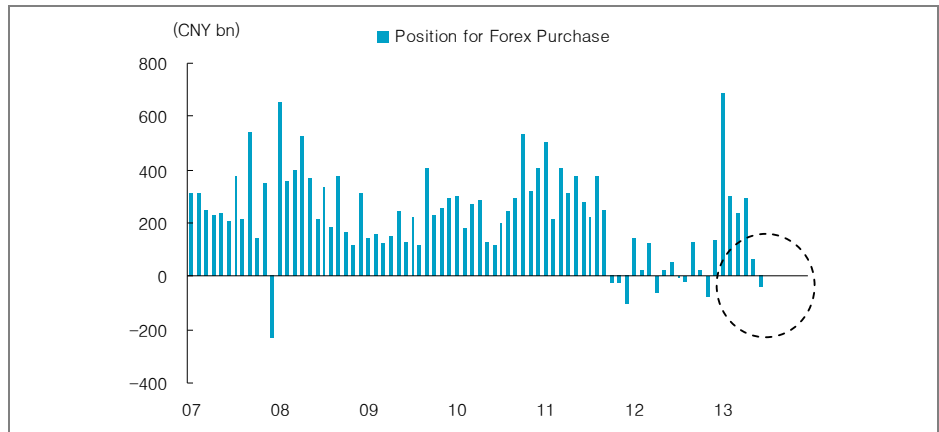
최근 단기자금시장 경색  
 재현 : 중국 정부의 우선순  
 위는 여전히 구조조정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 단기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일 중국 은행간 금리인 Shibor 1일물의 경우 지난 금요일보다 15bp 오른 3.7%를 기록했고 7일물은 64bp 급등한 4.99%를 기록해 8일 연속 상승했다.

지난 주말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지방정부의 채무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러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7월에 WMP 상품 만기가 대거 도래하고, 일부 은행의 배당금 지급으로 시중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인민은행이 5주간 공개시장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 고위 관료들이 여러 차례 경기 하강을 적극 방어하겠다는 립서비스를 내놓았지만, 실제 우선 순위는 여전히 구조조정이라는 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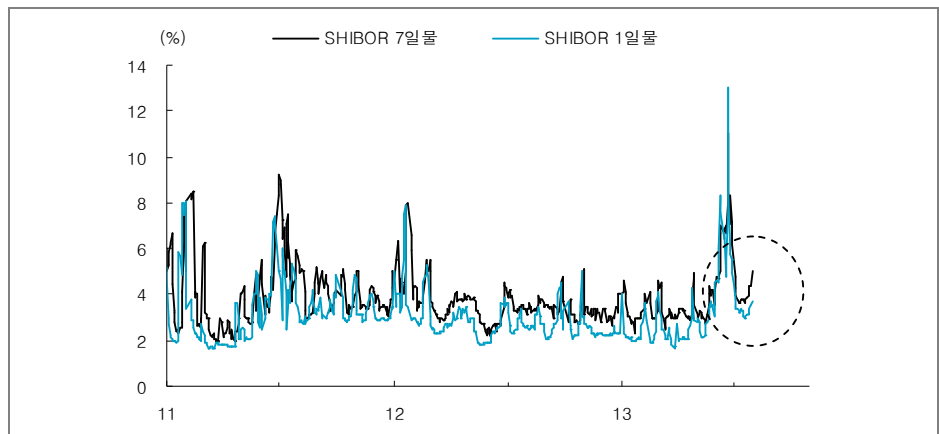
물론 현재의 금리 레벨은 6월 중순 고점에 비해 크게 낮다. 정부의 통제 의지가 다시 발휘된다면 문제로 발전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6월과 같은 외화 유동성 이탈이 재현된다면 언제든지 스트레스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인지가 필요하다.

[그림 4] 중국 7개월만에 처음으로 외화 순유출 발생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중국 SHIBOR 금리 재상승 : 스트레스 요인 남아 있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1차 기술적 반등 1,900선에서 완료 : 금리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이상의 Upside 제한적일 것

8월 시장은 금리, 엔/달러 환율 등 국제 유동성 관련 지표 지속 주시

■ 투자전략 :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7월 31일 FOMC 성명서는 우리 시간으로 8월 1일 새벽 3시 경에 발표된다. WSJ 등 일부 외신은 매입규모 축소를 연기(delay)하는 방안이 명문화될 수 있다는 루머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근 연준 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최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장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해야 한다. Fed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이 경기 부양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래커 총재는 올해에는 투표권이 없지만 2014년에는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대표적인 매과 인사다.

우리는 1차 기술적 반등은 1,900선에서 완료되었다고 본다. 7월 31일 FOMC 이후에도 금리가 시원하게 떨어지지 못한다면, 8월은 다시 모멘텀이 부재한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강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8월 시장을 마냥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금리 상승이 중국의 내부 유동성 경색을 야기했지만, 중국의 수출 둔화와 외환보유고 감소는 역으로 미국의 국채 소화를 어렵게 만든다. 한편 유럽 경기회복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엔화 강세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 약화는 유럽 국채 소화를 어렵게 만드는 유인이다. 7월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 통화정책 강도 약화 우려에 엔화가 강세 반전하고 있는데 엔/달러 환율이 중기 추세선인 120일 이평선을 이탈하느냐도 단기 관심사다. 어쨌거나 8월 시장은 무엇보다도 금리가 중요하다.

[그림 6] 엔/달러 환율 중기 추세선인 120일선에서 반등 성공할까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공포의 보수

### ■ 지난주 시장동향: 2분기 GDP 호조로 채권금리 상승

지난주 채권시장은 여전히 관망심리가 높은 가운데 보험세로 출발했다. 대기매수세 유입으로 우려가 높았던 국고채 20년 입찰이 무난히 마무리되었지만 매수심리는 회복되지 못했다. 결국 채권금리는 2분기 GDP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마감되었다.

### ■ 이번주 시장전망: 지표부진에 따른 소폭의 금리 되돌림

이번주 채권시장은 소폭의 금리 되돌림을 예상한다. 우리는 국내경제 상황에 비해 채권금리가 과도하게 올랐다고 판단하고 있다. 30일(화) 발표되는 2분기 산업생산에서는 광공업생산 부진이 확인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2분기 GDP의 큰 폭 반등으로 형성된 경기회복 기대감을 퇴색시켜 금리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금리하락은 31일(목)에 열리는 7월 FOMC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는 7월 FOMC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7월 FOMC에서 특별한 통화정책 시그널은 없다면 국내 채권금리도 일정부분 되돌려질 것으로 판단한다.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은 당분간 우호적이다. 8월 1일 BOE와 ECB의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포워드 가이드스가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8월 6일 RBA의 금리인하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경제권이 미국과 통화정책 다르게 가져갈 경우,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국내 시장 참여자들의 두려움도 상당부분 해소되어 국내 채권시장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7월 2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정책 불확실성 부각, 상해종합 1.7% 급락

- ▶ 중국 국가심계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채무조사 착수로 투자심리 위축, 상해종합 1.7% 급락
- ▶ SHIBOR금리 상승, 인프라 투자 둔화, 증자물량 증가 등 소식도 부정적 영향
- ▶ 홍콩H, 본토 정책 영향 및 2분기 은행 실적둔화 등으로 1.2% 하락

### ■ 중국 시장

**상해종합 1.7% 급락**  
의료서비스, 환경보호, 석유, 철강 등 업종 약세 뚜렷

상해종합지수가 1.7% 급락해 다시 2,000p선이 무너졌다. 약세 출발 후 하락폭은 지속 확대됐다. 거래대금은 658억위안으로 직전거래일과 비슷했다. 국가심계서가 중앙과 지방 정부채무 전면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지방정부 부채규모 외에도 향후 인프라투자 둔화, 국유주식 지분매각 등에 대한 우려가 동반됐다. 월말 들어 SHIBOR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 자금우려도 다시 제기됐다. 올해 A주 상장업체들의 증자물량이 IPO를 훨씬 초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급부담도 커졌다. 업종별로는 의료서비스(-3.8%), 환경보호(-3.7%), 석유(-3.4%), 철강(-3.3%), 증권(-3.1%), 영화방송(-3.1%), 통신서비스(-3.1%), 건설자재(-3.0%), 건축공정(-2.8%), 비철금속(-2.7%), 부동산(-2.4%), 금융신탁(-2.4%), 은행(-2.3%), 석탄(-2.2%), 음식료(-1.9%), 철도운송(-1.8%) 등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반기실적이 크게 부진했던 약재로 중선고분(中船股份)은 하한가로 마감했다.

### ■ 홍콩 시장

**홍콩H 1.2% 하락**  
건설자재, 시멘트, 철도, 은행, 보험 등 업종 하락

홍콩H지수는 본토증시 약세에 동조하며 1.2% 하락했다. 중국 국무원이 정부채무에 대한 전면조사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주된 약세배경이다. 미국 FOMC회의 개최와 2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도 부각됐다. 인프라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로 건설자재, 시멘트, 철도 관련주가 3%이상 급락하며 지수약세를 주도했다. 2분기 은행실적 둔화, 지방정부 부채우려 등의 영향으로 은행주들이 약세였고 중소형 은행주들의 하락폭이 컸다. 그 외에도 보험, 금융, 석유, 기계, 자동차, 석탄 등이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다만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다시 A주 ETF 매수에 나섰다는 소식은 호재로 인식되며 지수하락폭을 제한시켰다.

####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7/29(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1,976.31	-1.72	-1.42	-0.15	-12.90
홍콩 H	9,641.07	-1.17	2.40	3.54	-15.70
인도 SENSEX	19,637.64	-0.56	-2.59	1.25	1.09
러시아 RTS	1,345.70	-0.20	-2.49	5.51	-11.87
브라질 보베스파	49,422.05	0.72	4.27	4.14	-18.92
베트남 VN	485.69	-1.67	-4.04	0.95	17.39
MSCI 이머징마켓	961.53	-0.09	0.79	2.25	-8.88

주: 29일 오후 6시 기준

## 시장 동향과 특징주

### FOMC를 앞두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양지수 모두 하락

- 미국증시는 금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리며 하락세를 보였으나,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힘입어 상승 마감. 소폭 내림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과 연기금이 매수세를 보였으나 엿새 만에 매도세로 돌아선 외국인과 투신을 비롯한 기관의 매도세로 1,900P선을 하회하며 마감.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되며 하락반전되었으나, 540P선은 방어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신작 게임 '골프스타'가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 기대감이 고조된 컴투스가 견조한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STX는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며 그룹 회생 기대감에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도적 대북 지원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현대상선을 비롯해 대북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놓고 벌어진 중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 분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임. 또한, 국내 외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에 2차전지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임. 한편,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 소식에 CJ를 비롯해 일부 그룹주들이 약세를 보였으며, 중국 전세기 운항 취소에 따른 여파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동반 급락세를 보임

종목/이슈	내 용
<b>컴투스(078340)</b> <b>▶36,200(+6.31%)</b>	<b>신작 게임 '골프스타' 흥행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b> - 모바일 골프게임 '골프스타'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현재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와 매출순위 18위를 기록 중으로 흥행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골프스타'는 지난 4월 해외에 먼저 출시됐으며 43개국 앱스토어에서 스포츠 부문 1위를 기록, 국내에서도 우수게임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함
<b>대북 관련주</b>	<b>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 재개 소식에 강세</b> -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도적 대북 지원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강세. 이는 2011년 이후 2년 처음으로 정부는 민간단체 대북지원을 승인하고 유니세프의 영유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힘 - 재영솔루텍(049630, +10.81%), 현대상선(011200, +3.55%), 이화전기(024810, +3.08%), 에머슨퍼시픽(025980, +2.92%), 로만손(026040) 등 강세
<b>태양광 관련주</b>	<b>글로벌 업황 개선 기대감에 강세</b> -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두고 벌어진 중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 분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강세. 이로써 중국산 태양광패널 수출 가격을 유럽 시장 최저가로 재조정 - 오성엘에스티(052420), 웅진에너지(103130, 이상 상한가), 신성솔라에너지(011930, +5.02%), OCI(010060, +2.15%), 테스(095610, +2.11%), 넥솔론(110570, +2.05%) 등 강세

##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b>종근당(001630)</b> <b>▶66,900(+6.02%)</b>	- 올 상반기 다수의 신규 제네릭 출시에 따른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아울러, 국내에서 5번째로 출시되는 고혈압 복합제인 텔미누보는 올해 100억원의 매출을 목표
<b>우신시스템(017370)</b> <b>▶3,140(+5.37%)</b>	- 태국의 오토알라이언스 컴퍼니와 116억원 규모의 차체자동용접라인 설비 공급계약 체결 소식 및 하반기 실적 회복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 유망종목: LG 외 5개 종목

### - 신규 편입 종목

<b>LG</b> (003550)	- 주력 자회사인 LG화학 및 LG전자의 실적 개선과 함께 그룹차원에서의 전기차 관련 투자 본격화에 따른 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 LG CNS, 서브원, 실트론 등 주요 비상장사들의 수익성 개선과 배당금, 상표권사용수익, 임대수입 등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창출능력을 감안할 때 NAV 대비 과도한 할인율의 점진적인 축소흐름 지속 예상					
	(원, 십억원, 배)	<b>매출액</b>	<b>영업이익</b>	<b>순이익</b>	<b>EPS</b>	<b>PER</b>
	2012. 12A	9,827	1,183	931	5,294	12.3
2013. 12F	10,552	1,342	1,120	6,369	10.3	

- 편입 제외 종목: 한국타이어(기간경과로 제외 +19.0%)

(단위: 원, %)

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세보옵이씨 (011560)	4,475 (+1.4)	4,415 (7/11)	- 배관 및 덕트(Duct;공기나 기타 유체가 흐르는 통로 및 구조물) 설비 시공 국내 1위 업체로 주요 고객사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예상 - PSP(불소수지코팅덕트), 유기배기덕트 등 신제품 판매 증가로 영업이익률 상승 전망 최근 화학물질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이후 IT/화학업체들의 노후시설 교체 수요 증가 기대
비아트론 (141000)	15,200 (-8.7)	16,650 (7/02)	- 열처리 공정 관련 장비제조 업체로 경쟁사 대비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SMD, LGD, BOE 등 다수의 글로벌 패널 업체를 고객사로 보유 - 인라인형과 배치형 열처리 장비를 모두 제조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관련 투자 증가에 따른 수주 및 실적 모멘텀 지속 전망
신세계푸드 (031440)	92,400 (-4.9)	97,200 (6/20)	- 규제 리스크 등으로 단기 업황은 부진하나 산업의 성장성, 생산설비 확충, captive market 확보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올해 말로 예정된 음성 공장 가동으로 이마트 향 HMR(Home Meal Replacement) 및 PL상품의 매출 확대에 따른 성장성과 함께 제품믹스 개선 및 규모의 경제에 따른 수익성 개선 가능성 내재
현대차 (005380)	230,000 (+13.0)	203,500 (6/13)	- 가동률 상승과 해외공장 볼륨 증대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증설 및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 유효 - 엔저 및 글로벌 경쟁격화, 노조 문제 등에 따른 디스카운트 요인들은 주가에 선반영된 상태로 밸류에이션 정상화 가능성 상존
시그네틱스 (033170)	2,825 (-15.2)	3,330 (5/22)	- 반도체 수급 개선 및 모바일 수요 확대에 따른 패키지 외주 주문량 증가 추세 - 해외 고객사 비중 확대, 가동률 회복 등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 예상 고부가가치 High-end 제품 비중 확대, 시스템 LSI투자 확대, 고객 다변화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 내재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 현대차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통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비아트론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엔씨소프트 외 5개 종목

### - 신규 편입 종목

엔씨소프트 (036570)	- 주력 게임인 블레이드앤소울과 길드워2가 중국에서 상용화될 예정으로 하반기 해외 매출 본격화에 대한 기대 유효				
	- 리니지1과 아이온 등 기존 게임들의 성과가 견조한 가운데 신규 MMORPG인 와일드스타(WildStar)의 연내 출시, 모바일 게임 개발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성장 기조는 유지될 전망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2. 12F	754	151	156	7,830	19.2
2013. 12F	726	182	164	8,200	21.9

- 편입 제외 종목: NHN(분할에 따른 거래정지로 제외 +0.9%)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3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LS (006260)	72,500 (-1.0)	73,200 (7/22)	12,821	449	263	9,462	7.7
			- 예상보다 더딘 실적 개선과 JS전선 문제 등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상태로 밸류에이션은 금융위기 이후 저점 수준으로 추가적인 De-rating 가능성은 제한적 - 하반기 LS산전, LS니꼬동, LS엠틀론 등 자회사들의 점진적인 실적 개선 기대 유효 - 전선 사업부가 전력선 수익성 향상, 해저 케이블 이익 기여 본격화, 2014년 자회사 상장 모멘텀 등을 주목할 필요				
만도 (060980)	119,000 (+11.2)	107,500 (7/11)	5,730	344	242	13,426	8.9
			- 한라건설과 관련한 재무 리스크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기저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과 함께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주 매출처의 공격적인 증설과 점유율 상승, 우수한 기술 및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매출처 다변화, 중국 로컬업체와의 거래 확대, 전장제품 매출 비중 확대 등에 따른 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 (005930)	1,283,000 (-15.6)	1,520,000 (5/02)	235,178	42,197	31,496	202,968	6.3
			-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계절적 수요 약세에도 불구하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현 - 갤럭시S4 출시로 2분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를 감안할 때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해소 예상				
대교우B (019685)	3,990 (-0.7)	4,020 (4/11)	789	62	63	673	5.9
			- 유아 및 초등학습지 시장 1위(점유율 35%) 업체로 러닝센터에 대한 투자완료로 2013년 이익 개선 예상 - 학습지 단가 인상 가능성과 자회사를 통한 다양한 성장동력 모색 - 풍부한 자산가치와 배당 매력도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가치주로서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2012년 DPS기준 우선주의 예상 배당수익률 5%를 상회				
유한양행 (000100)	209,500 (+12.6)	186,000 (3/21)	918	64	130	12,330	17.0
			- 신제품 효과로 1분기 실적 호조가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API(원료의약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유한화학(100% 지분 소유)의 증설효과가 예상됨 - 유한킴벌리의 프리미엄 기저귀의 중국 수출 확대와 바이오 회사 지분투자 및 외부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한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 유효 - 장기 성장성, 실적 모멘텀, 업종 내 상대적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엔씨소프트, 삼성전자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건설: 2분기 실적 시사점- 공포의 진정

### ■ 낮아진 기대치에 부합, 2013년은 악성물량의 최대 소화 시기

2분기 실적은 낮아진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하회했다. 4분기에 매출이 가장 많이 반영되므로 이번 실적이 펀더멘털을 정확히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11년 수주한 악성 물량을 최대로 소화하고 있음에도 1분기 대비 손실 폭이 줄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극단적인 공포 국면은 일단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주로 10~11년 수주한 중동 화공플랜트 물량이 cost overrun 가능성에 노출됐다고 보고 모니터링 잔고로 분류하고 있다(4/15자 자료 참조). 1분기 말 대형사의 모니터링 잔고 비중은 작년 말 대비 평균 4.8%p 감소한 16.6%를 기록했고 공기지연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말에는 추가로 4.9%p 감소해 모니터링 잔고 비중은 11.8%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 ■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는 인프라 위주로 변화, 구조적인 마진의 하향 안정화

상반기 대형사의 해외수주는 94억달러, 확보 포함시 107억달러로 타겟의 48%에 해당, 양호했다. 삼성물산의 '로이힐' 수주를 제외해도 달성률은 37%에 이른다. 통상 해외수주와 주가는 동행했는데 잔고의 질 의구심으로 상반기에는 예외적인 디커플링을 보였다. 극심한 공포가 진정됐다면 원가 신뢰도가 높은 업체부터 이 갭을 축소할 것이다. 상반기 해외수주의 변화는 두가지다. 1) 중동 비중이 전년 47%에서 31%로 하락했다. 2) MENA 지역 발주는 전년대비 9% 감소했는데 화공플랜트 (-78%YoY) 영향이 컸다. 반면 인프라는 55%, oil&gas production은 50% 증가해 자국 제조업을 위한 기반투자의 양상을 뚜렷이 보여줬다.

저가 물량이 소화된 뒤 정상화될 해외원가율은 90~91%, 낙관 시나리오 하에서도 89%가 최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다음 요인 때문이다. 1) 발주 중심인 인프라는 화공플랜트처럼 cost overrun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타겟 마진 역시 낮다. 2) 지역 다각화는 고마진을 위한 노력이지만 시장 분산으로 비용의 효율성 역시 낮아질 수 있다.

### ■ 하반기 key factor 1) top-line 성장성, 2) 선진시장 exposure, 3) 유동성

발주시장 변화를 고려시 하반기 건설업에 중요한 가치는 세가지다. 1) 마진이 하락하는 저성장기에는 외형 고성장으로 판관비율 하락이 가능한 업체가 부각될 것이다. 2) 선진시장에 노출도가 필요하다. 이는 외형이 이미 커져버린 한 국업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다. 3) 유동성이 더욱 중요해진다. 하반기 건설사들은 장기 미착공 PF를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에 직면해 있다. 유동성과 손익이 양호한 업체만이 해소할 수 있는 이슈다.

### ■ Top picks는 대림산업과 삼성물산 유지

공포국면은 일단락 되고 있지만 cost overrun 여진이 마무리되고(4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MENA지역의 발주 둔화를 상쇄할 만큼 선진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시점에야 건설주의 추세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손익의 불확실성이 소폭이나마 개선되며 건설업 투자비중을 중립까지 맞출 필요는 있으나 종목 선정은 1) 밸류에이션이 싼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2) 언급한 key factor에 부합할 업체로 압축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Top picks는 대림산업과 삼성물산을 유지한다. 대림산업은 원가가 안정적임에도 PER 7배로 싸다. 약점인 YNCC 지분법손익의 리스크는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돼 화학 업황 반등시 밸류에이션 할인이 크게 축소될 것이다. 삼성물산은 업계 최대의 판관비율을 보이는 동시에 최대 수준의 해외 잔고를 가지고 있어 하반기 판관비율 하락에 따른 빠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7월 2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휴대폰 업종: 2분기 실적발표의 중요한 3가지 포인트

### ■ 2분기 글로벌 휴대폰과 스마트폰 출하대수는 우리의 예상치를 상회

아직 모든 휴대폰 업체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SA는 2분기 글로벌 휴대폰 출하대수를 3.86억대,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대수를 2.30억대로 발표했다. 모두 우리의 예상치(휴대폰 출하대수 3.82억대, 스마트폰 출하대수는 2.24억대)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1)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점유율이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32.7%)했지만 스마트폰 출하대수와 휴대폰 영업이익이 예상치 대비 대폭 하회했고, 2) 애플은 예상치를 상회한 31.2백만대의 스마트폰 판매를 나타냈는데 가격이 낮은 아이폰4와 4S가 오히려 판매호조를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3) LG전자는 국내 시장의 보조금 규제 이슈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판매 호조에 따라 스마트폰 점유율이 5%를 넘어서(5.3%) 스마트폰 3위 업체위치를 유지했고, 4) 중국 업체인 ZTE와 Huawei는 성장이 가장 빠른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이 5%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5) 노키아와 모토로라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스마트폰 판매로 인해 여전히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 ■ 첫째, 우려와 달리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는 나쁘지 않음

삼성전자의 2분기 스마트폰 출하대수와 휴대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자체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대수 감소율(QoQ)이 1.4%에 불과해 중국을 중심으로 유통 재고수준이 높을 가능성도 존재했다. 하지만 1) 2분기 출하대수가 당사 예상치를 상회했고, 2) 2분기의 전년대비 출하대수 증가율(47%)이 전년 2분기 증가율(43%) 보다 오히려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나쁘지 않음을 증명했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2013년 연간 스마트폰 수요 증가율을 기존 수치인 34%(9.41억대)를 그대로 유지한다.

### ■ 둘째, 스마트폰은 Innovation의 휴식기에 돌입

1) 2분기 삼성전자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75백만대의 스마트폰 출하대수와 6.34조의 휴대폰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1분기에 존재했던 특허소송 충당금 비용까지 감안하면 2분기 휴대폰 영업이익률은 4%p 이상 하락(QoQ)했다. 2) 애플은 2분기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스마트폰을 출하했지만 영업이익률은 2008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25.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반면 LG전자, HTC, 중국 업체(ZTE, Huawei)는 2분기에 스마트폰 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업종에서는 H/W와 S/W의 차별화 포인트가 약해지고, commoditization(범용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스마트폰 시장은 새로운 Innovation을 위한 휴식기에 돌입했다고 해석된다.

### ■ 셋째, Tier-2 업체들은 새로운 기회를 가질 전망, LG전자의 수익성 상승을 예상

이렇게 스마트폰의 범용화가 가속화되는 경우에 1) 삼성과 애플 등의 Tier-1 업체들은 당분간 가격경쟁과 마케팅비용 지출 위주의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2) LG전자, 소니, HTC 등의 Tier-2 업체들은 오히려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상승시킬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는 LG전자는 기본적인 경쟁력 이외에 그 동안 부족했던 제품 경쟁력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하여 향후 Tier-2 중에서 점유율과 수익성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체로 판단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7월 2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만도(060980)

<b>매수(유지)</b>
목표가: 150,000원(상향)
종가(7/26): 115,500원

## 수익의 가시성 제고

### ■ What's new : 영업이익률 3분기 연속 회복

최근 주가반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우선 2분기 영업이익률이 작년 3분기 2.7%를 바닥으로 3분기 연속 회복했다. 현대, 기아의 가동률 상승과 12년 3분기 기저효과로 실적 회복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 부품이 빠르게 전장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는 확고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장기 전망도 밝다. 만도는 신제품 SDC(Smart Damping Control) 시스템을 신형 Genesis(11월 출시 예정)에 공급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크기와 무게를 각각 19%, 12% 줄인 신형 ABS(Anti-lock Brake System) MGH-80를 양산하고 있다.

### ■ Positives : 중국판매 증가로 높아진 영업이익률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한 1조 4,548억원을 기록하며 추정치에 부합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14.9% 증가한 902억원이었다. 이로써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와 같은 6.2%로 당사의 추정치 6.1%를 소폭 상회했다. 이는 수익성이 높은 중국판매가 초강세였기 때문이다. 세전이익은 667억원(+3.1% YoY)으로 추정치를 17.7% 하회했는데 이는 1) 1분기 100억원의 외화환산이익이 달러 대비 루피와 헤알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2분기에는 10억원 외화환산 손실로 인식됐고, 2) IPO 관련 비용이 96억원으로 예상보다 컸으며, 3) 1분기 지분법이익 7억 4천만원도 2분기에 20억원 손실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 기아의 중국판매(상반기 판매대수 +32.6% YoY)가 시장 성장률(12.3%)을 크게 상회한 점이 특히 긍정적이다. 12년 기준 현대, 기아는 만도 중국 매출액의 51%를 차지하며, 상하이GM 13%, Geely 9%, 기타 26%가 그 뒤를 잇는다. 만도 중국 법인의 2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은 각각 3,210억원(+15.3% YoY), 410억원(+33.3% YoY)이었다. 이로써 만도 중국 법인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39.1%에서 45.5%로 상승했다.

### ■ Negatives : 한라건설 부담 여전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3,385억원을 투자함에 따라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나 한라건설 우선주에 대한 3% 배당금이 이를 상쇄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라건설이 세운 5,600억원의 자구책이 성공할 지 여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여서 여전히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 ■ 결론 : 높아진 수익 가시성을 반영해 목표주가 150,000원으로 상향

현 주가는 12MF PER 7.8배이며 EPS 증가율은 52.4% YoY로 추정된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높아진 수익의 가시성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135,000원에서 150,000원(12MF PER 10배, 부품업종 평균 목표 PER을 10% 할인)으로 상향한다.

(단위: 십억원, %, %p)

	2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461.2	1,454.8	(0.4)	1,451.5	6.5	14.4	5,730.2	5,688.2
영업이익	89.6	90.2	0.7	89.9	10.1	14.9	344.4	342.2
영업이익률(%)	6.1	6.2	0.1	6.2	0.2	0.0	6.0	6.0
세전이익	81.1	66.7	(17.7)	81.8	(24.4)	3.1	301.1	317.4
순이익	62.4	51.0	(18.2)	63.8	(27.5)	2.6	231.9	250.7

\*상기 보고서는 2013년 7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비에이치(090460)

<b>매수(유지)</b>
목표가: 19,000원(유지)
종가(7/26): 11,200원

## 2Q13 Preview: 호실적 달성해 이병헌(BH)만큼 행복한 시기

### ■ 2분기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액 1천억원 돌파 예상

비에이치는 2분기에 매출액 1,025억원(+38.6%QoQ, +87.0%YoY), 영업이익 91억원(+57.7%QoQ, +105.2%YoY)으로 매출액 1천억원을 처음 돌파하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의 우리 추정치(매출액 851억원, 영업이익 73억원)를 20%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되는 이유는 1) 최대 고객사의 신규 주력 스마트폰 네 번째 버전의 부품 오더가 1분기 대비 약 26.7% 증가, 2) SDC內 TSP와 LCD 모듈용 FPCB 공급 점유율이 기존의 35%에서 50%까지 확대되며 1위 협력업체의 지위 유지, 그리고 3) 이미 상반기에 연간 목표치 캐파 증설 완료에 기인한다. 비에이치는 달러 기준 원화로 매출을 인식해서 원화 약세 또한 2분기 호실적 달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기존 2분기 실적 추정 시 적용 환율 1,064원/\$, 금번 적용 환율은 1,123원/\$이다.

### ■ 공급과잉도 아니고 실적 부진도 아닌 긍정적인 상황의 3분기

시장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1) 대부분의 FPCB 업체들이 대규모 증설을 했는데 산업 공급과잉에 따른 출혈 경쟁과 2) 세계 1위 휴대폰 업체의 신규 High-end 스마트폰 네 번째 버전의 판매 부진으로 부품 발주 감소에 따른 실적 하락이다. 물론 이러한 이유로 3분기 실적이 역성장하는 부품업체들이 있겠지만 동사는 예외이다. 비에이치가 1차 벤더로서 물량을 수주한 제품은 증설을 통해 경쟁사들이 2차 또는 3차 벤더로 승인을 받아도 일단 최대 고객사의 전체적인 물량이 감소하면 1차 벤더가 아닌 후발 업체들의 물량을 먼저 줄인다. 그리고 최대 고객사의 신규 필기인식 스마트폰의 TSP FPCB 오더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 물량 증가, 2) 제품믹스 개선, 그리고 3) 환율 약세 등 우호적인 영업환경이 3분기에 이어질 전망이다.

### ■ 역사적 최저점 수준의 Valuation 매력 보유, 투자의견 ‘매수’ 유지

2013년에는 매출액 3,820억원(+69.4%YoY), 영업이익 332억원(+79.7%YoY)으로 연초 가이드스 매출액을 12.4% 상회하며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 이는 1) 판매량과 상관없이 최대 고객사가 올해 출시하는 주력 High-end 스마트폰에서 공급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2) 하반기에 양면이나 다층보다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인 RF PCB를 출시하고, 3) 국내 2위 휴대폰 업체향 연간 목표 매출액 350억원을 이미 상반기에 달성해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이다. 2013F PER 5.7배로 2007년 상장 이후 최저점 수준이며 확실한 저평가 메리트가 발생한 지금이 적절한 매수 시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9,000원(12MF EPS에 KIS 휴대폰부품업종 PER 8.4배 적용)을 유지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1A	153	11	8	9	752	754.9	15	8.3	8.5	1.5	18.4
2012A	226	18	14	14	934	24.1	24	12.8	9.4	2.4	21.5
2013F	382	33	33	29	1,982	112.3	39	5.7	5.8	1.7	34.2
2014F	450	40	39	34	2,250	13.5	47	5.0	4.7	1.3	28.9
2015F	535	49	47	39	2,582	14.8	57	4.3	3.7	1.0	25.3

\*상기 보고서는 2013년 7월 2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KB금융(105560)

<b>매수(유지)</b>
목표가: 48,000원(유지)
종가(7/26): 35,650원

## 일회성 손실 속에서 경상적 순익 구하기

### ■ What's new: 일회성 손실로 인해 시장 예상 하회한 2분기 순익

KB금융의 2분기 순이익은 1,635억원으로 당사의 추정치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카자흐스탄 은행 Bank Center Credit 감액손실 1,200억원, 대기업대출 위험평가 충당금 320억원, 세무조사비용 490억원 등 일회성 손실/비용 요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에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으로는 금융당국의 권고로 충당금 적립률이 높은 일부여신에 대해 자산건전성 재분류하며 대손비용이 380억원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비이자이익 부문도 예상보다 더 부진했다.

### ■ Positives: 일회성 제외된 수정 대손비용은 51% QoQ 감소

KB금융의 가장 큰 자랑인 양호한 자산건전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2분기 대손충당금 전입비용은 7.8% QoQ 증가했다. 그러나 1분기에는 대손충당금 환입이 있었고 2분기에는 대기업대출 신용위험평가와 금감원의 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일회성 추가 대손비용 700억원을 감안해서 비교를 해보면 2분기 대손충당금 전입비용은 51.3% QoQ 감소한 것이다. 특히 집단대출 연체가 개선되면서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전입비용이 51.4% QoQ 감소한 점이 긍정적이다.

### ■ Negatives: 충당금 적립전 영업이익 6.5% QoQ 감소

2분기 충당금 적립전 영업이익은 8천억원으로 6.5% QoQ 감소했다. 대출성장이 2.4% QoQ로 높았음에도 NIM 낙폭이 커져 순이자이익이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데다가 비이자이익이 12.8% QoQ 감소했기 때문이다. 비이자이익 부문에서 일회성 요인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환율 약세와 금리 급등에 따른 운용손실이 컸던 것으로 판단한다.

### ■ 결론: 비이자이익 회복 가능성 높으므로 3분기 순익 두 배 이상 증가 전망

우리는 비이자이익의 부진이 3분기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지난 2년간 일회성요인을 제외한 수정 비이자이익은 3천억원 이상인데 시장 환경 악화로 이번 수정 비이자이익은 2천억원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과거 추이를 볼 때 두 분기 연속으로 비이자이익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보다는 경상적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실적의 초점은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는 자산건전성과 향후 비이자이익 회복에 맞춰야 한다. 따라서 비이자이익의 일시적 부진으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2분기 일회성 손실 등을 반영하여 2013년 실적 추정치를 24.1% 하향조정하나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8,000원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2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순이자이익	1,659	1,649	(0.6)		(0.1)	(7.7)	6,577	
총영업이익	939	803	(14.5)		(6.5)	(27.0)	3,663	
금융자산 손상차손	413	351	(14.9)		7.8	(3.5)	1,547	
세전이익	540	323	(40.1)		(41.0)	(55.7)	2,172	
지배주주 지분 순이익	413	164	(60.4)	322	(60.3)	(70.2)	1,653	1,556

\*상기 보고서는 2013년 7월 2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삼성전자(005930)

**매수(유지)**

목표가: 1,800,000원(하향)

종가(7/26): 1,303,000원

## 부품의 시대가 온다

### ■ What's new : 부품 사업 호조, 스마트폰 수익성 하락

삼성전자는 2Q13 매출 57.5원, 영업이익 9.53조원, 순이익 7.77조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호조, OLED 매출 증가 및 이익 개선으로 반도체, DP의 부품 사업 실적은 호조였지만, 마케팅 비용 증가 및 R&D 투자 확대에 따라 스마트폰 사업을 포함한 IM 사업은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하락했다.

### ■ Positives : 부품 사업 개선 본격화, 2013년 연간 Capex 24조원 발표

2Q 반도체 실적은 PC DRAM 가격 상승으로 DRAM ASP가 7% QoQ 상승하는 등 메모리 사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 1.76조원(65% QoQ)으로 개선되었다. 3Q에도 메모리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고, bit growth가 상승하면서(DRAM 16% QoQ, NAND 8% QoQ) 반도체 영업이익은 2.26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시스템 LSI는 1Q에 이어 2Q에도 가동률 하락으로 부진했지만, 3Q부터는 스마트폰 신제품향 AP 공급 증가로 회복된다. DP 사업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주력 제품향 OLED 수요 급증에 따라 영업이익 1.12조원(45% QoQ)으로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2013년 연간 24조원의 Capex 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 Capex 집행이 9조원(37.5%)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Capex가 15조원으로 급증한다. 메모리 및 OLED의 투자 확대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후발업체들과의 격차를 벌려나갈 것이다.

### ■ Negatives : 갤럭시 S4 판매 주춤, ASP 하락, 마케팅 비용 증가로 IM OP 감소

2Q IM 사업은 OP 6.28조원, OPM 17.7%로 1Q OP가 애플 소송 관련 충당금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영업이익률 하락은 4%p를 넘었다. 신규 갤럭시 S4의 판매는 2Q 2천만대 수준이지만, 3Q 1,700만대(이전 전망 2천만대)에 그치고, 갤럭시노트3 출시에도 ASP 하락, 마케팅 비용 증가로 하반기 IM 사업의 OP는 3Q 6.05조원(OPM 16.6%), 4Q 5.24조원(OPM 14.6%)로 감소할 전망이다.

### ■ 결론 : 절대 저평가 구간이지만 단기 주가 상승은 제한적, 목표주가 180만원으로 하향

스마트폰 사업의 성장성 둔화에 따른 디스카운트를 감안하여 목표주가를 180만원으로 하향한다. 2014년의 Worst Case 시나리오(반도체 OPM 12%, IM OPM 10%)의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SOTP에 의한 산출 주가는 148만원으로 현 주가는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의 승자의 위치를 굳건히 할 것으로 확신하지만, 스마트폰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단위: 십억원, %, %p)

	2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57,000	57,464	0.8	59,221	8.7	20.7	233,398	236,967
영업이익	9,500	9,531	0.3	10,159	8.6	49.1	37,500	39,449
영업이익률(%)	16.7	16.6	(0.1p)	17.2	(0.0p)	3.2p	16.1	16.6
세전이익	9,781	9,828	0.5	10,628	8.6	46.0	38,365	40,859
순이익	7,561	7,575	0.2	8,159	8.6	50.0	29,583	31,756

\*상기 보고서는 2013년 7월 2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에스원(012750)

**매수(유지)**

목표가: 81,000원(상향)

종가(7/26): 70,000원

## 외형 성장과 더불어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

### ■ What's new : 2분기 실적은 보안상품 판매 호조로 컨센서스 상회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240억원과 348억원으로 컨센서스 2,996억원과 345억원 대비 각각 8.1%, 0.9% 상회했다. 시스템경비 서비스와 상품 판매 호조로 매출액이 전분기대비 16.9%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보안 상품 판매가 삼성그룹 관계사, 공공 프로젝트 등으로 전분기대비 56.9% 늘었다. 정보보안 자회사인 시큐아이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공공기관 매출 증가와 마케팅 채널 확대 효과로 282억원과 47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31%, 2% 증가했다.

### ■ Positives : 가입자 증가세 회복과 ARPU 개선

2분기 시스템경비 순증계약건수가 6,976건으로 전분기대비 37.1% 증가했다. 6월말 시스템경비 유지계약건수는 468,705건으로 3월말대비 1.5% 늘었다. 6월 11일 출시한 세콤 홈블랙박스 계약건수는 6월말 기준 약 500건으로 시장이 반응이 좋은 편이다. 가입자당 월매출액(ARPU)은 132,053원으로 전분기대비 0.7% 상승했다. 신규 계약건당 공사매출도 전년동기대비 17.5% 증가한 28만8천원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세콤 홈블랙박스 기여 확대로 시스템 경비 가입자 증가세가 개선되고, 보안상품 판매도 삼성그룹 관계사와 증등 등 해외사업 매출 확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 Negatives : 매출 증가에도 수익성 개선은 더디지만

2분기 영업이익률은 큰 폭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10.7%로 전분기와 같았다.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안상품 판매의 매출 비중이 21.1%로 전분기대비 5.4%p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안상품 판매 부분도 매출 규모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로 이익률이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영업외부문에서는 배당금 지급에 따른 보유현금이 감소해 이자수익이 줄었고, 재고자산 폐기손실이 전분기대비 늘어나면서 세전이익은 334억원으로 컨센서스를 4.5% 하회했다.

### ■ 결론 : 실적 개선 지속될 전망, '매수' 유지

에스원에 대한 12개월 목표주가를 수익전망치를 높인 것을 반영해 72,000원에서 81,000원(DCF Valuation)으로 상향조정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근거는 다음 네가지다. 1) 시스템경비 가입자 증가와 보안상품 판매 호조 등으로 양호한 외형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 비용 효율화와 규모의 경제 효과로 수익성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시큐아이의 실적이 정보보안시장 규모 확대에 호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4) 금년 주당 배당금은 전년과 같은 1,250원으로 예상된다.

(단위: 십억원, %, %p)

	2Q13P			컨센서스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87.6	324.0	12.7%	299.6	16.9%	23.7%	1,246.8	1,201.3
영업이익	32.0	34.8	8.7%	34.5	17.6%	4.5%	134.2	140.5
영업이익률(%)	11.1	10.7	(0.4%p)	11.5	0.1%p	(2.0%p)	10.8	11.7
세전이익	33.4	33.4	(0.1%)	35.0	7.1%	(7.7%)	139.7	144.8
순이익	25.6	24.3	(5.1%)	26.3	(2.4%)	(8.8%)	106.1	111.3

\*상기 보고서는 2013년 7월 2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7/22(월)	07/23(화)	07/24(수)	07/25(목)	07/26(금)	07/29(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80.35	1,904.15	1,912.08	1,909.61	1,910.81	1,899.89	
	등락폭	8.94	23.80	7.93	-2.47	1.20	-10.92	
	등락종목	상승(상한)	435(3)	497(10)	445(7)	304(5)	417(3)	222(6)
		하락(하한)	362(0)	303(0)	341(1)	494(1)	385(1)	591(0)
	ADR	116.28	129.26	124.70	112.61	107.11	100.87	
	이격도	10 일	100.78	101.65	101.60	101.29	101.14	100.43
		20 일	101.79	102.74	102.81	102.47	102.40	101.70
	투자심리	50	50	60	50	60	50	
	거래량 (백만 주)	357	352	322	312	320	333	
	거래대금 (십억 원)	3,652	4,348	3,546	3,902	3,865	4,165	
코스닥	코스닥지수	541.14	541.64	543.60	541.94	545.31	540.98	
	등락폭	-0.73	0.50	1.96	-1.66	3.37	-4.33	
	등락종목	상승(상한)	435(10)	497(6)	445(6)	304(5)	417(6)	240(3)
		하락(하한)	362(1)	303(0)	341(1)	494(1)	385(4)	679(1)
	ADR	117.75	130.12	123.31	110.17	106.08	96.90	
	이격도	10 일	101.52	101.19	101.03	100.44	100.83	99.86
		20 일	103.29	102.79	102.67	102.07	102.45	101.51
	투자심리	50	50	60	50	60	50	
	거래량 (백만 주)	326	308	358	369	327	342	
	거래대금 (십억 원)	1,559	1,550	1,668	1,719	1,555	1,594	

##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용투자)							기 타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유가증권	매수	2,071.5	958.0	1,118.1	247.0	143.4	215.0	61.1	26.4	425.203	46.8
	매도	2,018.3	883.1	1,248.4	158.6	177.5	435.5	101.6	55.6	319.6	44.6
	순매수	53.2	74.9	-130.3	88.4	-34.1	-220.5	-40.5	-29.2	105.6	2.2
	7월 누계	-1,046.4	683.5	358.8	193.1	25.0	-670.7	-1.3	-288.3	1,101.0	4.1
	13년 누계	1,057.5	-9,302.9	8,799.5	2,034.9	1,022.9	-740.5	276.2	-339.5	6,545.6	-554.1
코스닥	매수	1,443.6	70.2	86.5	14.8	13.0	23.3	4.6	2.9	27.8	13.0
	매도	1,422.2	96.6	78.6	15.9	9.6	16.1	8.4	1.3	27.3	16.0
	순매수	21.4	-26.4	7.9	-1.1	3.4	7.2	-3.7	1.6	0.5	-2.9
	7월 누계	7.2	66.6	-25.9	0.0	36.3	-10.1	-15.7	15.2	-51.4	-48.0
	13년 누계	-1,003.7	860.4	728.7	-49.7	103.4	408.5	-105.8	-39.9	422.3	-585.5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3,664	서비스업	-106,283
화학	3,459	전기,전자	-75,067
의약품	1,995	운수창고	-19,972
LG전자	5,248	NHN	-96,374
삼성물산	5,035	삼성전자	-35,601
LG화학	4,778	SK하이닉스	-31,276
KODEX 200	3,078	대한항공	-18,340
현대위아	2,572	삼성전기	-5,899

연 기 금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30,002	증권	-2,822
운수장비	14,659	운수창고	-1,620
금융업	13,631	섬유,의복	-563
삼성전자	22,350	SK하이닉스	-22,108
NHN	17,593	OCI	-4,977
LG유플러스	7,871	삼성증권	-4,614
SK이노베이션	7,129	대한항공	-2,902
KT	6,393	엔씨소프트	-2,674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창고	1,521	운수장비	-12,541
의약품	1,333	전기,전자	-8,853
통신업	989	화학	-6,428
KODEX 레버리지	2,843	현대차	-11,577
KODEX 200	1,985	삼성전자	-5,396
현대제철	1,699	삼성SDI	-3,697
대한항공	1,680	LG화학	-2,910
현대산업	1,040	OCI	-2,566

보 험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9,711	전기,전자	-36,980
운수장비	8,844	건설업	-5,626
금융업	3,983	보험	-3,666
현대모비스	7,813	SK하이닉스	-25,119
SK이노베이션	6,167	삼성전자	-13,281
NHN	5,932	대한항공	-2,852
LG전자	4,154	현대산업	-2,393
LG화학	3,284	ARIRANG 200	-2,386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18,602	전기,전자	-85,210
금융업	14,549	서비스업	-42,797
의약품	9,952	운수창고	-21,765
SK이노베이션	12,295	SK하이닉스	-42,990
현대모비스	11,903	NHN	-35,975
LG전자	9,908	삼성전자	-35,260
KT	9,762	대한항공	-22,062
KODEX 200	9,716	현대미포조선	-10,697
LG유플러스	9,473	OCI	-10,239
현대위아	6,829	삼성전기	-9,826
POSCO	6,140	삼성엔지니어링	-9,549
삼성물산	5,899	삼성SDI	-9,248
락앤락	4,697	현대차	-9,225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93,363	전기,전자	-68,290
화학	53,077	건설업	-7,751
통신업	14,958	운수창고	-6,356
현대차	46,182	SK하이닉스	-52,397
LG화학	29,792	삼성전자	-21,288
OCI	18,330	현대산업	-11,397
현대모비스	13,897	삼성전기	-9,495
삼성SDI	10,346	KODEX 200	-8,225
삼성중공업	9,961	삼성물산	-6,841
기아차	9,066	대한항공	-6,636
현대미포조선	8,981	우리금융	-3,816
엔씨소프트	8,277	삼성전자우	-3,537
LG유플러스	7,806	현대백화점	-3,34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2,361	사업지원	-2,103
IT부품	2,360	금융서비스	-1,273
통신서비스	1,467	화학	-894
SK브로드밴드	1,467	하나투어	-1,605
파트론	1,310	하나그린스팩	-1,234
GS홈쇼핑	1,226	CJ오쇼핑	-920
원익IPS	1,125	솔브레인	-809
리움쿠첸	728	코오롱생명과학	-787

연 기 금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4,512	사업지원	-1,523
인터넷	1,939	전문기술	-1,322
기계,장비	947	도매	-1,163
유진테크	2,826	컴투스	-1,697
다음	1,939	하나투어	-993
서울반도체	1,322	씨티씨바이오	-877
조이시티	966	CJ E&M	-804
에스엠	750	코텍	-59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523	오락,문화	-267
도매	344	통신장비	-194
반도체	290	의료,정밀기기	-134
컴투스	606	미디어플렉스	-290
코오롱생명과학	326	휴맥스	-199
씨티씨바이오	281	메디투스	-138
동일금속	137	뷰웍스	-106
에스앤씨엔진그룹	126	SBS콘텐츠허브	-83

보 험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사업지원	1,113	금속	-1,513
통신장비	680	음식료,담배	-586
방송서비스	652	기계,장비	-482
파트론	744	와이지-원	-1,263
게임빌	641	이라이콤	-591
모두투어	605	매일유업	-586
CJ오쇼핑	587	다음	-431
파라다이스	580	인터플렉스	-308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6,680	사업지원	-3,583
제약	4,325	음식료,담배	-2,125
디지털컨텐츠	2,241	금융서비스	-2,108
셀트리온	3,195	하나투어	-2,427
파트론	2,967	하나그린스팩	-2,227
유진테크	2,729	매일유업	-2,102
게임빌	2,312	씨그널정보통신	-1,950
원익IPS	2,238	솔브레인	-1,490
에스엠	2,099	CJ E&M	-1,472
다음	1,856	인프라웨어	-1,326
GS홈쇼핑	1,806	모두투어	-1,321
OCI머티리얼즈	1,155	씨티씨바이오	-1,160
파라다이스	1,126	원스테크넷	-1,106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연구,개발	1,624	IT부품	-5,697
제약	1,579	전문기술	-5,544
연료광업	485	소프트웨어	-2,835
셀트리온	4,055	CJ E&M	-5,568
켄트로닉스	2,105	파트론	-2,075
마크로젠	1,764	매일유업	-1,874
서울반도체	1,678	네패스	-1,652
미디어플렉스	934	하나투어	-1,585
CJ오쇼핑	885	씨젠	-1,527
솔브레인	839	포스코 ICT	-1,314
젠탭스	763	에스엠	-1,225
액토즈소프트	649	원스테크넷	-1,120
삼천리자전거	618	다음	-1,09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종목	기관	외국인	연속일수
하나금융지주	18 일	진로	14 일
TIGER 원유선물(H)	15 일	한화	11 일
현대중공업	13 일	현대차	11 일
삼양사	9 일	삼성증권	7 일
KCC	9 일	성진지오텍	7 일
태광산업	9 일	LG패션	7 일
LG	9 일	대림산업	6 일
웅진케미칼	9 일	현대건설	6 일

KOSDAQ			
종목	기관	외국인	연속일수
이트레이드증권	42 일	동양시멘트	23 일
메가스터디	38 일	테크노세미켄	15 일
SK브로드밴드	10 일	동국산업	10 일
태광	7 일	셀트리온	10 일
에스엠	7 일	CJ오쇼핑	8 일
포스코 ICT	5 일	주성엔지니어링	7 일
한국토지신탁	5 일	디지텍시스템	6 일
GS홈쇼핑	4 일	큐렉소	5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목	기관	외국인	누적액
KODEX 레버리지	270,425	삼성전자	185,163
LG디스플레이	81,283	현대차	145,398
현대중공업	64,898	LG화학	118,470
롯데케미칼	56,896	NHN	104,376
POSCO	48,801	삼성SDI	62,034
KT	33,933	엔씨소프트	35,610
SK이노베이션	30,363	신한지주	30,681
우리금융	30,208	롯데케미칼	24,334

KOSDAQ			
종목	기관	외국인	누적액
에스엠	6,963	셀트리온	32,519
포스코 ICT	4,915	CJ오쇼핑	12,105
SK브로드밴드	4,179	다음	7,078
태광	3,979	하나투어	4,946
코텍	3,804	솔브레인	4,649
GS홈쇼핑	3,280	성광밴드	4,003
OCI머티리얼즈	3,258	삼천리자전거	2,476
셀트리온	2,812	인프라웨어	2,079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목	KOSPI		
	기관	외국인	합계
운수장비	2,764	93,363	96,126
통신업	18,602	14,958	33,560
보험	3,091	3,154	6,245
현대모비스	11,903	13,897	25,799
LG유플러스	9,473	7,806	17,279
LG전자	9,908	5,184	15,092
KT	9,762	2,570	12,332
기아차	2,949	9,066	12,015
현대위아	6,829	2,753	9,582
삼성생명	1,957	5,450	7,407
LG디스플레이	2,117	4,934	7,050
대우조선해양	1,983	1,749	3,732
유한양행	2,260	791	3,051

종목	KOSDAQ		
	기관	외국인	합계
제약	4,325	1,579	5,905
연구,개발	339	1,624	1,963
오락,문화	913	139	1,052
셀트리온	3,195	4,055	7,250
게임빌	2,312	466	2,778
원익IPS	2,238	9	2,247
캠트로닉스	8	2,105	2,113
덕산하이메탈	841	426	1,267
SK브로드밴드	673	581	1,255
제이콘텐트리	590	246	836
세코닉스	794	24	819
오스팀임플란트	353	441	793
태광	134	558	69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진로	18 일	신도리코	21 일
LG패션	17 일	락앤락	14 일
에스원	15 일	삼성카드	11 일
TIGER 농산물선물(H)	11 일	GS	11 일
한화	10 일	삼양사	9 일
남양유업	10 일	코오롱인더	8 일
대한항공	9 일	신세계	6 일
현대산업	9 일	우리금융	6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오쇼핑	13 일	서부T&D	11 일
매일유업	11 일	메가스터디	9 일
포스코엔텍	11 일	다날	5 일
STS반도체	8 일	에이테크솔루션	5 일
SDN	7 일	우리이티아이	5 일
심텍	5 일	GS홈쇼핑	4 일
젠택스	5 일	에스엠	4 일
인터파크	3 일	인터플렉스	4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NHN	-160,635	SK하이닉스	-59,583
SK하이닉스	-107,479	현대중공업	-25,276
삼성전자	-100,691	삼성엔지니어링	-19,741
KODEX 인버스	-75,755	강원랜드	-19,485
현대차	-61,621	삼성전기	-17,723
삼성전기	-45,903	SK이노베이션	-16,533
제일모직	-45,747	우리금융	-15,467
대한항공	-41,007	LG	-14,752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 E&M	-11,090	인터플렉스	-4,420
하나투어	-8,496	서부T&D	-2,316
CJ오쇼핑	-7,253	네패스	-2,250
엑토즈소프트	-6,127	세코닉스	-2,187
AP시스템	-4,928	매일유업	-1,827
솔브레인	-4,811	에스엠	-1,824
매일유업	-4,804	코텍	-1,567
하나그린스팩	-3,254	포스코 ICT	-1,557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 전자	-85,210	-68,290	-153,500
서비스업	-42,797	-5,296	-48,093
운수창고	-21,765	-6,356	-28,121
SK하이닉스	-42,990	-52,397	-95,387
삼성전자	-35,260	-21,288	-56,548
NHN	-35,975	-2,006	-37,982
대한항공	-22,062	-6,636	-28,698
삼성전기	-9,826	-9,495	-19,321
현대산업	-3,679	-11,397	-15,076
삼성엔지니어링	-9,549	-1,809	-11,358
스카이라이프	-2,270	-3,194	-5,465
KODEX 인버스	-2,603	-2,612	-5,215
삼성전자우	-936	-3,537	-4,473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문기술	-1,686	-5,544	-7,230
사업지원	-3,583	-2,045	-5,628
음식료, 담배	-2,125	-2,266	-4,392
CJ E&M	-1,472	-5,568	-7,040
하나투어	-2,427	-1,585	-4,012
매일유업	-2,102	-1,874	-3,977
원스테크넷	-1,106	-1,120	-2,226
씨티씨바이오	-1,160	-923	-2,083
씨그널정보통신	-1,950	-32	-1,983
모두투어	-1,321	-190	-1,510
인터플렉스	-1,046	-256	-1,303
와이지-원	-888	-186	-1,074
컴투스	-524	-518	-1,04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SK하이닉스	781	22,119	
현대중공업	89	18,414	
삼성전기	146	12,026	
OCI	48	7,938	
삼성전자	6	7,865	
현대제철	111	7,755	
오리온	8	7,735	
KODEX 200	304	7,52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32	1,685	
골프존	0	1,583	
매일유업	15	581	
CJ E&M	3	527	
대봉엘에스	88	508	
위메이드	1	373	
윈스테크넷	0	369	
파인디지털	44	337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551	4,626,777	
POSCO	8,258	2,700,465	
LG전자	21,698	1,568,785	
SK하이닉스	42,097	1,185,021	
현대차	5,144	1,159,958	
OCI	5,799	942,343	
기아차	10,292	629,848	
NHN	1,910	574,99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0,563	552,432	
파라다이스	6,577	150,291	
파트론	7,380	115,495	
에스엠	2,449	92,444	
서울반도체	2,336	84,450	
하나투어	797	62,982	
오스템임플란트	2,015	61,061	
인터플렉스	1,352	57,681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종이, 목재	1,615	화학	-12,922
통신업	1,508	금융업	-12,149
전기, 전자	1,433	운수장비	-7,736
대영포장	1,280	한화케미칼	-8,851
LG유플러스	1,243	우리금융	-5,856
LG전자	1,135	신한지주	-3,722
페이퍼코리아	763	GS	-3,644
삼성엔지니어링	716	KB금융	-3,203
하나금융지주	655	기업은행	-2,636
흥아해운	651	삼성증권	-2,112
중국원양자원	530	기아차	-2,066
LG상사	523	삼성물산	-1,963
삼익약기	457	두산인프라코어	-1,73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IT부품	2,623	음식료, 담배	-274
소프트웨어	599	의료, 정밀기기	-188
제약	505	통신장비	-123
파트론	920	이지바이오	-433
하이소닉	674	파라다이스	-261
셀트리온	399	에이블씨엔씨	-183
토비스	381	흙개스트	-138
루멘스	360	젬백스	-115
우리산업	337	와이지-원	-101
미디어플렉스	286	SKC 솔믹스	-98
AP시스템	276	주성엔지니어링	-96
KG이니시스	240	실리콘웍스	-93
코나아이	233	서울반도체	-84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7/23(화)	07/24(수)	07/25(목)	07/26(금)	07/29(월)
외국인	-9,302.9	683.5	676.0	312.1	188.8	159.2	208.4	74.9
기관계	8,799.5	358.8	-244.3	30.4	17.8	-73.4	-111.4	-130.3
(투신)	-740.5	-670.7	-442.3	-38.7	22.4	-85.3	-71.9	-220.5
(연기금)	5,435.8	1,035.5	-43.5	114.7	33.3	104.7	8.0	113.4
(은행)	-339.5	-288.3	-1.4	-33.9	-20.4	-8.6	-0.8	-29.2
(보험)	1,022.9	25.0	28.0	-21.6	3.1	-39.9	1.1	-34.1
개인	1,057.5	-1,046.4	-377.4	-332.2	-202.3	-78.6	-96.9	53.2
기타	-554.1	4.1	-54.3	-10.4	-4.3	-7.2	-0.2	2.2

주: KOSDAQ 제외

##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07/22(월)	07/23(화)	07/24(수)	07/25(목)	07/26(금)
KOSPI	2,033.3	1,825.7	1,997.1	1,880.4	1,904.2	1,912.1	1,909.6	1,910.8
고객예탁금	15,249.8	17,680.2	18,014.3	17,614.0	17,533.4	17,658.3	18,715.5	18,951.3
(증감액)	1,996.5	3,611.7	334.1	-3.3	-80.6	124.9	1,057.2	235.8
(회전율)	50.3	34.2	26.7	29.6	33.6	29.5	30.0	28.6
실질예탁금 증감	-3,502.6	3,775.5	-13,274.3	65.8	-94.0	-31.2	767.2	28.2
신용잔고	59,709.0	44,763.0	39,124.0	4,541.0	4,567.4	4,564.4	4,552.3	4,551.9
미수금	1,778.0	1,877.0	1,241.0	150.0	162.3	164.6	145.5	146.2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7/22(월)	07/23(화)	07/24(수)	07/25(목)	07/26(금)
전체 주식형	92,890	-469	738	-44	42	51	-33	189
(ex. ETF)		-2,649	22	-4	-33	-96	-49	-1
국내 주식형	69,845	1,733	999	-37	111	61	-15	202
(ex. ETF)		-459	279	3	37	-87	-32	11
해외 주식형	23,046	-2,201	-260	-7	-69	-10	-17	-13
(ex. ETF)		-2,189	-257	-7	-69	-10	-17	-13
주식 혼합형	9,600	-321	38	-2	5	-8	-25	-6
채권 혼합형	23,712	4,980	-43	99	12	6	-3	75
채권형	53,652	1,025	-621	-130	114	-389	352	-139
MMF	75,560	11,400	6,577	-901	-614	-248	-759	-2,23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7/23(화)	07/24(수)	07/25(목)	07/26(금)	07/29(월)
한 국	-8,267	626	1,423	279	169	143	187	67
대 만	1,971	2,406	577	357	117	134	112	-
인 도	12,274	-1,067	-143	37	-66	-40	-	-
인도네시아	-463	-410	-74	31	8	-22	-9	-
태국	-2,435	92	-82	18	-13	12	-3	-
남아공	2,274	-175	-95	-	-66	54	-85	-
필리핀	1,669	173	2	4	-2	-1	0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07/22(월)	07/23(화)	07/24(수)	07/25(목)	07/26(금)	07/29(월)
회사채 (AA-)	3.29	3.34	3.36	3.37	3.41	3.39	3.34
회사채 (BBB-)	8.80	8.97	8.99	9.00	9.06	9.05	9.01
국고채 (3년)	2.82	2.85	2.88	2.89	2.95	2.94	2.90
국고채 (5년)	2.97	3.10	3.12	3.14	3.22	3.21	3.17
국고채 (10년)	3.16	3.41	3.41	3.43	3.52	3.51	3.46
미 국채 (10년)	1.76	2.50	2.50	2.59	2.57	2.57	-
일 국채 (10년)	0.80	0.79	0.78	0.77	0.80	0.80	-
원/달러	1,070.60	1,118.90	1,117.00	1,112.70	1,116.10	1,111.10	1,110.50
원/엔	1,243.73	1,117.56	1,122.05	1,112.92	1,119.12	1,124.25	1,134.78
엔/달러	86.08	100.12	99.55	100.07	99.73	98.83	97.86
달러/유로	1.32	1.32	1.32	1.32	1.32	1.33	1.33
DDR3 1Gb (1333MHz)	0.67	1.27	1.27	1.27	1.27	1.27	-
DDR3 2Gb (1333MHz)	1.07	1.77	1.78	1.78	1.76	1.71	-
NAND Flash 16Gb (MLC)	1.89	2.98	2.98	2.98	2.98	2.98	-
CRB 지수	295.01	291.04	290.65	287.74	286.90	284.46	-
LME 지수	3,454.5	3,043.0	3,046.0	3,056.2	3,031.7	2,976.4	-
BDI	699	1,135	1,127	1,117	1,092	1,082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108.05	107.23	105.39	105.49	104.70	-
금 (달러/온스)	1,663.40	1,336.00	1,339.80	1,319.50	1,328.80	1,321.5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KOSPI200	최근월물 1309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이론	마감	평균		증감	증감
7월 23일	246.63	247.15	0.92	0.52	0.92	181,568	111,217	482
7월 24일	247.84	247.75	0.91	-0.09	0.48	115,664	109,605	-1,612
7월 25일	247.71	247.90	0.88	0.19	0.46	148,950	109,252	-353
7월 26일	247.80	248.85	0.87	1.05	0.78	134,812	108,697	-555
7월 29일	246.53	247.70	0.83	1.17	0.72	141,884	108,185	-512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7월 23일	6,982	-469	-6,819	-6,474	-260	26	-115	0
7월 24일	-219	416	-376	711	-1,183	-9	508	-398
7월 25일	2,260	-1,072	-1,351	-30	-1,775	2	495	-45
7월 26일	1,458	-2,270	938	1,786	-856	-7	-43	59
7월 29일	311	-544	381	-20	261	34	-46	152
누적포지션	1,595	-170	-2,897	-4,295	1,257	-227	691	-324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7월 23일	487	798	311	470	764	294	17	34	17	4,937	8,404
7월 24일	460	497	37	442	479	37	18	18	0	4,931	8,399
7월 25일	588	542	-45	570	531	-39	18	11	-6	4,930	8,392
7월 26일	442	443	1	431	426	-4	12	17	6	4,924	8,391
7월 29일	573	667	95	549	634	85	23	3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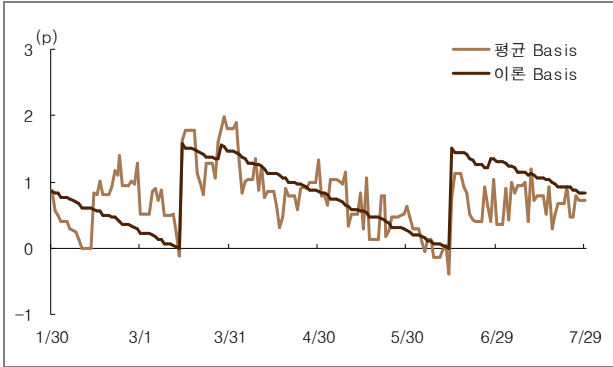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 / 가격(P))

변동성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15.55	-1,037	96,907	0.05	260.00	13.10	22	1	0.00
15.56	982	131,344	0.13	257.50	10.65	6	-3	27.16
15.77	1,184	223,605	0.32	255.00	8.35	205	-3	11.02
16.33	-2,873	222,840	0.73	252.50	6.40	2,582	112	15.26
17.03	443	170,626	1.45	250.00	4.50	7,719	374	15.38
17.53	913	72,641	2.48	247.50	3.10	44,383	1,302	16.47
18.30	418	10,187	3.90	245.00	1.99	151,063	1,224	17.01
19.24	-130	2,317	5.65	242.50	1.25	157,552	2,619	17.82
22.41	-47	448	7.90	240.00	0.77	160,536	849	18.70
22.27	-58	94	9.90	237.50	0.45	112,149	832	19.40
24.53	-44	64	12.25	235.00	0.27	73,165	-1,057	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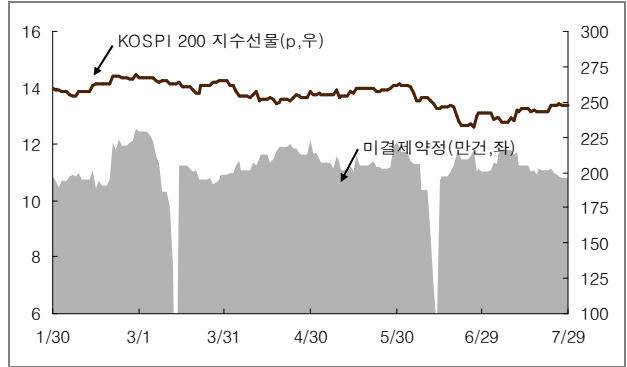
## ■ 주요 지표

###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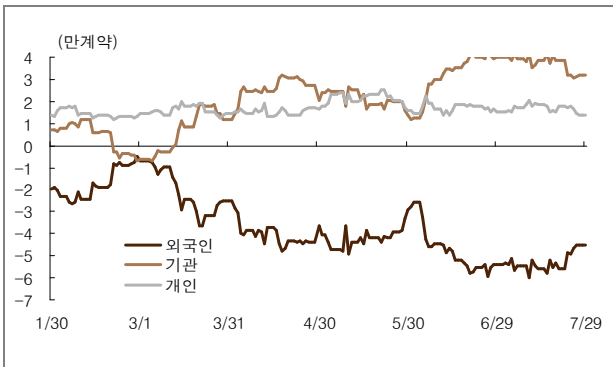
- 평균 Basis: 0.72 (전 거래일 대비 0.06 하락)
- 이론 Basis: 0.83

###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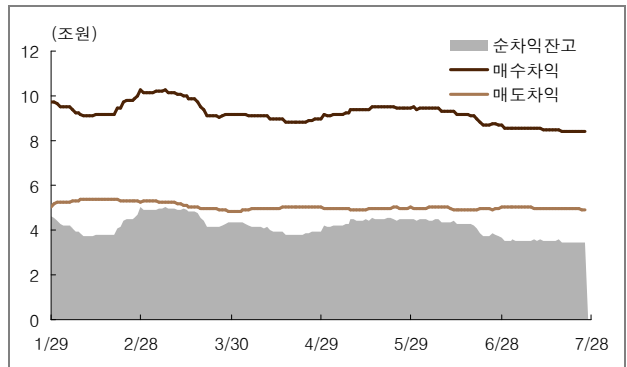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512 계약 감소한 108,185 계약
- 선물가격(247.70): 전 거래일 대비 1.15p 하락

###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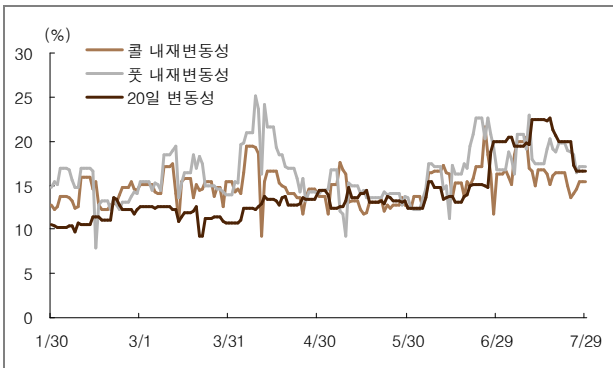
- 외국인: 311 계약 순매수
- 기관: 381 계약 순매수 / 개인: 544 계약 순매도

###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99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849 억원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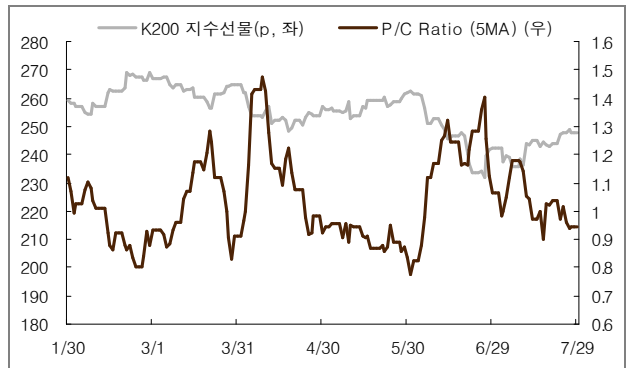
###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5.5% / 풋 17.1%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6.57%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3년 6월말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95 기록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2	23	24	25	26
美> 6월 기준주택매매 MoM (-1.2%, 1.5%, 3.4%)	유럽> 6월 유로권 소비자대지수 (-17.4, -18.3, -18.8)	유럽> 6월 유로존 제조업 PMI (50.1, 49.0, 48.8) 6월 독일 제조업 PMI (예상) (50.3, 49.2, 48.6) 中> 6월HSBC PMI (47.7, 48.2, 48.2) 日> 6월 조정상품거래수지 (-5,987, -5,947, -7,779)	韓> 2분기 GDP SA YoY (잠정) (2.3%, 2.0%, 1.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4.3만, 34.0만, 33.6만)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299.7만, 302.5만, 311.6만) 6월 내구재 주문 (4.2%, 1.4%, 5.2%)	韓> 6월 소비자대지수 (105, n/a, 105) 美> 7월 미시간대 소비자대지수 (85.1, 84.0, 83.9) 日> 6월 국내 CPI YoY (0.2%, 0.1%, -0.3%)
29	30	31	8/1	8/2
美> 6월 미결주택매매 MoM (n/a, -1.2%, 6.7%)  실적발표> 韓 LG유플러스, 현대산업	韓> 6월 경상수지(백만 달러) (n/a, n/a, 8638.8) 美> 6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n/a, n/a, 152.37) 7월 소비자대지수 (n/a, 81.0, 81.4) 유럽> 7월 소비자대지수 (n/a, n/a, -9.5) 日> 6월 산업생산 YoY (n/a, -1.5%, 1.9%)  실적발표> 韓 SKT, 제일모직, 신한지주 유한양행 美 Pfizer, Merck, Symantec Aetna, Goodyear Tire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1.2%) 7월 ADP 취업자 변동 (n/a, 18.0만, 18.8만) 2분기 연간화 GDP QoQ (n/a, 1.0%, 1.8%) <b>FOMC 금리 결정</b> 유럽> 7월 유로권 실업률 (n/a, 12.2%, 12.2%) 中> 6월 선행지수 (n/a, n/a, 99.60) 日> 7월 Markit/JMMA 제조업 PMI (n/a, n/a, 52.3)  실적발표> 韓 한전 KPS,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코리안리 美 Mastercard, MetLife Comcast	韓> 7월 CPI MoM (n/a, 0.2%, -0.1%) 7월 HSBC 제조업 PMI (n/a, n/a, 49.4) 美> 6월 건설지출 MoM (n/a, 0.4%, 0.5%) 7월 ISM 제조업지수 (n/a, 52.0, 50.9) 유럽> 7월 유로존 제조업 PMI(최종) (n/a, 50.1, 50.1) 7월 독일 제조업 PMI(최종) (n/a, 50.3, 50.3) <b>ECB 금리 공시</b> 中> 7월 제조업 PMI (n/a, 49.8, 50.1) 7월 HSBC 제조업 PMI (n/a, 47.7, 48.2) 日> 7월 자동차판매 YoY (n/a, n/a, -15.8)  실적발표> 韓 하나투어, CJ, SK C&C 美 Marathon Petroleum Exxon Mobil, Kellogg	美> 7월 총 차량 판매 (만대) (n/a, 1,580, 1,589) 7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n/a, 18.4만, 19.5만) 6월 개인소비지수 (n/a, 0.5%, 0.3%) 7월 제조업 수주 (n/a, 1.4%, 2.1%) 日> 7월 본원통화 평균잔고 YoY  실적발표> 韓 현대글로벌비스, KT 우리금융, BS금융지주 컴투스 美 Kraft, Chevron, Eaton Viacom
5	6	7	8	9
유럽> 7월 유로존 서비스 PMI(최종) 7월 독일 서비스 PMI(최종) 6월 유로권 소매판매	美> 6월 무역수지	韓> 7월 은행가계대출 (KRW, 조)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韓>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 中> 7월 무역수지 (USD) 日> 6월 경상계정총액 6월 무역수지 - BOP 기준 일본은행 정책금리 발표	美> 6월 도매재고지수 中> 7월 CPI YoY 7월 PPI YoY 日> 6월 3차산업 활동지수 MoM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